



롯데홈쇼핑, '희망수리간' 11년간 6.8만개 반찬 나눔
롯데홈쇼핑이 2015년부터 운영해 온 나눔 시설 '희망수리간'을 통해 지난 11년간 지역 소외계층에게 총 417회에 걸쳐 6만8천여개의 반찬을 전달하며 따뜻한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에 위치한 '희망수리간'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전용 조리시설이다.

/롯데홈쇼핑



락앤락 '그린메이트' 25기 수료식 성료

락앤락이 친환경 대학생 서포터즈 '그린메이트' 25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29일 락앤락에 따르면 그린메이트는 회사가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2013년 꾸려 10년 넘게 운영하며 약 440명의 그린메이트를 배출했다. 캠퍼스 내 지속 가능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락앤락



두산건설, 프로골퍼 신지애와 7000만원 기부

두산건설은 지난 26일 연말을 맞아 두산건설이 후원하는 프로골퍼 신지애 선수와 함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7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칭그랜트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의 사업에 일정한 금액을 맞춰 후원금을 마련하는 기금 조성 방식이다.

/두산건설



iM금융, 포항시 지역기업 특화금융 지원 MOU

iM금융그룹은 포항시와 지역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역특화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편적인 금융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iM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초교 안전 하굣길 조성 나선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효문초등학교에서 'JB 엘로우 카펫 제 1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재학생 208명의 전주효문초등학교는 도심권 학군 지역에 위치해 학교 주변에 주거단지가 밀집해있다. 특히 평소 차량 이동과 통학하는 학생 수가 많고, 유동인구와 교통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선 필요성이 높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JB금융그룹

LG전자, 산불피해 의성 고운사에 '스마트코티지' 기증

단기간 설치 가능한 모듈 주택 형태 전각 전소로 거쳐 잃은 스님들 주거 고효율 가전·태양광 등 친환경 설계

LG전자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천년고찰 '고운사' 스님들을 위해 주거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LG 스마트코티지를 기증했다. LG 스마트코티지는 스님들이 기거하며 수행하는 공간인 요사채로 활용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최근 경북 의성 고운사에 LG 스마트코티지 14평(45m²) 2층 형 모델(듀오 맥스 45)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1층에는 생활에 꼭 필요 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 가전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LG전



LG전자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천년고찰 '고운사' 스님들을 위해 주거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LG 스마트코티지를 기증했다. 고운사에 설치된 LG 스마트코티지 사진. /LG전자

자의 고효율 가전과 태양광 패널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했다. 이는 자연친화적인 사찰의 문화 와도 맞닿아 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영남지방을 휩

쓸 등 많은 보물들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조연우 대표는 "산불 피해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고운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LG전자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스마트코티지에 설치된 가전과 공조시스템, IoT 기기들은 LG 씽큐 앱을 활용해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모듈 구조체와 창호, 배선,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의 70% 이상을 미리 제작한 뒤 배송되는 '프리 패브' 방식으로 제작돼,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최대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노드림펀딩' 누적 참여 2만명 돌파

LG이노텍 아동 중심 사회공헌 강화

LG이노텍이 임직원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 '이노드림펀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이노드림펀딩의 누적 참여자가 2만600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노드림펀딩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돋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해 사내 사회공헌 포털에 사연을 등록하면, 임직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고 모금액을 수혜 가정에 전달하는 온라인 기부활동이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올해는 연간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연간 모금액도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LG이노텍은 올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인 '아이 드림 앱'을 도입해 미래세대 지원을 강화했다. 눈(Eye)과 아이(Kids)의 의미를 담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돋고 더 밝은 미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사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재편했다.

LG이노텍은 '아이 드림 앱'의 대표 활동인 '아동·청소년 실명 예방 사업'을 통해 치료비 부담으로 의료사 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400명에게 안과 검진 비용을 비롯해 사시, 안검내반 등 안질환 수술 및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올해까지 누적 1만6000명의 아동이 소재·부품 과학 교실에 참여했으며, 돌봄 기관 53곳, 아동·청소년 1900여 명의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차현정 기자

삼양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 기탁

삼양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삼양홀딩스가 1억원, 삼양엔씨케미 2억원을 각각 출연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과 미혼모 지원, 멸종 위기 생물 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환경보호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삼양그룹은 2001년부터 2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삼양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양영재단과 수당재단을 통한 장학사업으로 인재 육성과 학문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대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과학캠프'를 운영하며 과학·공학 분야 체험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연사랑 파란마을 그림축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이대엄마아기병원, 6000번째 아기 탄생

7개월 만에 누적 분만 6000건 달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6일 이대엄마아기병원 2층 고위험산

과센터에서 '분만 6000건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크리스마스 이틀전인 23일 오전 11시 42분경 이대엄마아기병원에서 6000번째로 선덕이(태명)가 태어났다. 선덕이는 51세인 엄마 A씨가 7년 만에 처음 만난 아이다.

A씨는 한국계 호주인 남편과 결혼해 호주에 거주하며 아이를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 시험관 시술을 위해 국내 병원을 찾았다. 이후 A씨는 임신 33주차 조기 산통 상황에서 제왕절개술로 2.74kg의 선덕이를 품에 안았다.

A씨는 "고위험 산모라는 점에서 병원 선택을 고민했는데 지인들에게서 이대엄마아기병원에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관리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많다는 추천을

받았다"며 "실제로 입원 전, 후 모든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출산하고 무사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26일 병원에서 퇴원하며 '의료진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고대하던 첫 아이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은 2019년 이대 서울병원 모아센터로 문을 열었고 2024년 5월 23일 병원으로 재탄생했다. 지난 1년간 매월 평균 150~160건의 분만을 시행해 올해 5월 말 누적 분만 5000건을 넘겼다.

특히 이번에는 불과 7개월 만에 누적 분만 6000건을 돌파했다. 또 올해는 엄마아기병동을 기존 20병상에서 26병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21병상에서 24병으로 각각 확장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넥슨, 10년간 800억 기부로 사회공헌 확대

게임 IP 활용해 교육·의료 환원

올해 넥슨과 넥슨재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며 실천해 왔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넥슨이 우리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은 약 110억 원에 달하며,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누적 기부액은 약 800억 원에 이른다.

넥슨의 사회공헌 사업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교육, 사회복지, 재난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졌다.

특히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꾸준히 진행되어온 코딩 교육 사업은 올해 더욱 체계화됐다. 캠

퓨팅교사협회와 함께 운영해 온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소셜 공학과 브릭 놀이를 결합한 융합형 코딩 교육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 기준 '하이파이브 챌린지'의 누적 참여 학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국 다수의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은 정식 론칭 이후 학교 연계 수업과 찾아가는 코딩 교실, 대학생 멘토 봉사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코딩 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인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과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풍력산업과장
황윤길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프로젝트관리팀장 권기만△ 과장급 보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조진화

부음

▲ 조중근 씨 별세=조길호(전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약사)·일호씨·영호씨 부친상, 이명희(국민일보 논설위원)씨 시부상=28일 20시 20분, 빈소 삼성서울병원 6호실, 발인 31일 오전, 장지 남양주 영락교회공원묘지, 02)3410-3151